

빈고 10년 평가

1. 빈고 10년 시기 구분

- 1.1. 빈마을금고 시기 (1기, 2기)
- 1.2. 해방촌 시기(3기, 4기)
- 1.3. 확산기(5기, 6기, 7기)
- 1.4. 전환기(8기, 9기, 10기)

2. 빈고의 역할

2.1. 공동체금융기관

빈고는 빈집들의 연대체인 빈마을의 재정적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안되었다. 2009년초에 4개의 빈집이 각기 다른 재정상태와 원칙을 갖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빈마을의 재정고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보증금의 조달.
2. 공동체 출자자를 위한 출자 및 반환의 편의성 제고
3. 출자금의 유무, 다소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동등성 구현
4. 공동체들 간의 공유자원의 이동과 배분의 효율성 제고
5. 자본수익의 공유를 통한 환대와 연대의 의무 실현
6. 공동체 운영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비
7. 대안화폐 등 조합원간 교환 및 선물 수단

그동안 빈고는 이 기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혹은 지나칠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

1. 빈고에 결합된 공동체 중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다. 오히려 현재는 자원이 남아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다.
2. 출자자들은 출자할 때, 빈고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과 낯섬의 문턱만 한 번 넘어서면 출자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반환에 대한 어려움도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3. 공동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 내부에서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동등성은 당연히 전제되고 있다.
4. 총회에서 공유자원계획을 함께하는 것이 정착되었고, 공동체에 필요한만큼의 자원을 공급하지 못한 적은 거의 없고, 이용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5. 지구분담금과 공동체기금 등으로서 적립되고 있다. 하지만 금액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연대와 환대가 부족해서 오히려 잉여분이 쌓이고 있다.
6. 공동체기금, 건강보험계, 빈고적립금 등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7. 화폐단위 빈 도입과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이체 기능의 다양화

그 다음 목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규모의 성장? 어디로? 어떻게?

다른 조직에 확대적용? 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당장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과다한 기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이고, 분배를 늘리는
형태로 에너지를 비축하는 안 가능할 것.

2.2. 주거공동체운동

2.2.1. 빈집의 가치 : 자치(탈국가), 공유(탈자본), 환대(탈가족)

2.2.2. 공동체형태가 다양화되었지만, 주거공동체가 여전히 다수.

2.2.2.1. 셰어하우스 : 평집, 단편집, 따로또같이, 명륜동쓰리룸, 망집, 원가족

2.2.2.2. 청년주거지원 : 모두들, 빈둥

2.2.2.3. 사회주택지원 : 홍보야지

2.2.2.4. 주택매입 : 그린집

2.2.2.5. 주택건설 : 키키

2.2.3. 셰어하우스,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공적 청년주거
형태가 이미 많아졌고, 지원조직도 많음.

2.2.4. 빈고 공동체들 중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위와 같은 지원을 수용, 활용하고 있음.

2.2.5. 청년, 노동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의 지원 조건도 좋아지고
있음.

2.2.6. 공동체 회원의 주거는?

2.2.7. 빈고가 그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다.

2.2.8. 주거공동체가 여전히 빈고를 활용하는 이유는?

2.2.9. 주거공동체운동의 방향? 목표? 다음 과제?

2.2.10. 자치(탈국가), 공유(탈자본), 환대(탈가족)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2.3. 공유지확장운동

2.3.1. 카페 : 공룡

2.3.2. 서점 : 레드박스

2.3.3. 사무실 : 빈컴퓨터, 들, 이룸

2.3.4. 농업 : 미세마을

2.3.5. 토지 : 빈땅

2.4. 반자본금융운동

2.4.1. 금융실천

2.4.1.1. 출자, 이용, 연대, 운영 활동

2.4.1.2. 어떻게 구체화하고 추진할 것인가?

2.4.2. 금융계획

2.4.2.1. 공동체재무설계

- 2.4.2.2. 재무상담
- 2.4.3. 금융교육
 - 2.4.3.1. 신입조합원교육
 - 2.4.3.2. 빈고게임
 - 2.4.3.3. 꼬문학교
 - 2.4.3.4. 꼬문뱅크워크샵
 - 2.4.3.5. 세미나
 - 2.4.3.6.
- 2.4.4. 금융이슈
 - 2.4.4.1. 지구분담금으로 이슈가 되는 현장에 지원하는 것이 유일.
 - 2.4.4.2. 현실 경제 이슈와 결합해서 입장을 내지는 못하고 있음.

2.5. 공동체들의 공동체

- 2.5.1. 활동
 - 2.5.1.1. 공동체활동가회의/공동체회의/지역회의
 - 2.5.1.2. 뉴스레터/공동체소식
 - 2.5.1.3. 공동체기금
 - 2.5.1.4. 펍권조약
 - 2.5.1.5. 정관, 반폭력규약
- 2.5.2. 빈마을이라는 조직, 해방촌이라는 지역을 벗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들의 공동체’라는 규정은 금융의 상징을 제외하면 온라인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만 존재.
- 2.5.3. 금융적인 원칙과 필요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공통점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다양해진 공동체들. 무엇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 2.5.4. 유일하게 뉴스레터가 꾸준히 공동체소식을 모으고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과 검토, 연계작업들이 더 있으면 좋을 듯.
- 2.5.5. 공동체기금은 사실상 정체되어서, 향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5.6. 펍권조약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

3. 의견

- 3.1. 각 평가지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자. 설문조사 등.
- 3.2. 평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운동 같은 경우.
- 3.3.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 3.4. 금융과 운동의 충돌. 은행기능과 ‘공동체들의 공동체’ 충돌
- 3.5. 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3.6. 공감과 지지에서 머무르지 말고 논의나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3.7. 활동가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깊이 논의되거나 진행되지는 못했다.
- 3.8. 두루뭉수리함이 빈고의 방식이기도.

- 3.9. 대안금융 교육운동에 집중해 볼 필요.
- 3.10. 대안금융은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3.11. 이런 내용을 10주년 사업으로 대안금융에 대한 방향 토론을 해보는 것은?
- 3.12. 액션을 위해서는 현실 이슈에 대한 내용과 입장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
- 3.13. 세계금융 이슈 등에 대한 연구. 여성과 금융
- 3.14. 시장에서 현금쓰자
- 3.15. 빈고의 기본활동(출자, 이용, 연대, 운영) 외의 다른 실천
- 3.16. 조직의 문제
- 3.17.

4. 영길샘 평가(미완성)

빈고 10년에 대한 작은 생각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은행이라는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대안의 금융체제를 이야기한 지 10년이다.

나에게는 그 첫인연을 맺게 해준 빈집을 포함하면 10년이 넘는 관계들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 10년이라는 시간경계의 앞뒤에서 고민을 모아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 오긴 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나 너무나 두루뭉술하다. 운동이나 현실만큼이나 질문과 고민들이 구체적 실체를 가지기에는 제대로 된 자리잡기가 불가능했던 시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적어도 내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장소적 배경을 가진 ‘자리잡기’가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해본다.

내가 빈집/빈고에서 배운 것

처음 해방촌 빈집을 방문해서 새로운 주거공동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연을 맺었다. 당시가 청주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의 단계였기에 비슷한 취지의 공동체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자본주의라는 체제하에서 살아가면서 “반자본주의”와 “공동체”를 내걸고 새로운 실험들을 한다는 것이 가지는 신선함보다는 이것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에 좀더 방점을 찍었던 것 같다.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었던 해방촌이라는 장소만큼이나 빈집/빈고도 많은 변화들과 참여자들의 변화들을 겪어내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는게 아닌가 싶다.

여하튼 첫 연결지점들이 “반자본주의”와 “공동체”이다 보니 이후 빈고와 나의 관계는 이러한 고민들의 연장선과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지점에 줄곧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빈고가 나에게 증명한 것은 결국 운동이란 것은 끊임없는 “자기선언”의 반복이라는 전통적/전위적(?) 방식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화되는 실험의 가능성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모든 운동들이 현실이 아닌 가상과 상상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들의 논쟁의 장에 머무는 동안 아주 작지만 몸으로 겪을 수 있는 실체의 운동을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들을 증명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결국 운동이란 이론적 논쟁의 장에서 현실로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빈고를 통해 접하는 “공동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고민이 깊어진 부분도 있다. 공동체들이 각자의 색깔들을 드러내고 현실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그 지속가능성이 현실에서 상실되어가는지에 대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랄까 ?

우리가 활동을 하며 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상 책에서 접하는 것과 같이 그 실상이나 현실에서의 어려움들을 보기 힘든데 빈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다.

연대를 통한 운동의 확장 가능성

내가 청주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빈고가 하나의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확장의 가능성때문이 아닌가 싶다. 모든 운동들이 나름의 생애주기처럼 일정정도의 리듬을 지속한다고 볼 때 적어도 빈고는 각각의 공동체들이 가지는 운동성들이 점차로 확장되어가는 방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공동체들이 연대라는 하나의 방식을 띄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들을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들과 그 공동체가 저한 지역적/장소적 특징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부할 꺼리랄까 ?

공룡에게는 나름의 반면교사같은 지점들이 늘 있어왔던 것 같다.

기존의 지역중심의 연대라는 것들이 일종의 사건 중심의 연대이거나 철저히 정치적 의미들을 띄는 것들에 한정되는 반면에 비록 느슨하지만 빈집/빈고를 통한 연대의 가능성은 좀더 확장되어지는 만남의 가능성을 던져준다는 의미가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빈고에 출자 혹은 이용금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연대라는 틀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 즉 공룡이 하고자 했던 반자본주의 실험의 든든한 울타리같은 느낌들이 있었다는 생각이지만 여전히 생각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된다.

새로운 빈고와의 시작 혹은 그 반성들

빈고에서 여러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공동체들을 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룡이 현재 처해진 환경과 지금까지의 활동들 안에서 쌓이게 된 나름의 고민의 축적일 수도 있다.

그 첫 질문은 과연 공동체는 무엇이고 공동체는 한국사회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과연 나는/공룡은 이러한 형태들의 삶들을 공동체로 긍정하느냐 하는 것과 소위 주거공동체들의 삶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고민들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민들은 공룡내에서 더 깊어지기보다는 차라리 “공동체”라는 것을 제거한 공동체로 밝힘으로써 한국사회내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혹은 무개념 적으로 보이는 “공동체”논의에서 빠져나오자는 생각도 하는 편이다.

이는 단순히 빈고의 공동체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사회에서 활동가라는 직함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징후일 수 있다. 각지에서 출현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과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고 차라리 일종의 사회적 피난처이거나 현실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읽히는 것들에 대한 자괴감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이러한 심리적 상황들때문인지 공동체에 대하여 피하면 피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정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 질문은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 혹은 우리는 차이를 긍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인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할수 있거나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있지 않은 그야말로 판단의 영역이 아닌 그 차이를 인정하는 사실 자체이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동일성의 과정을 겪는 것이고 이 동일화의 과정에서 고민과 서로의 긍정,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들에 대한 논쟁들이 일정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빈고의 개별 공동체와의 관계는 그저 차이를 인정할 뿐 이를 긍정적인 가치논쟁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다.

세 번째는 확장성 없는 운동이 가능한가? 혹은 자기만족/자기긍정만 남은 것은 운동인가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운동이나 활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동반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고 본다. 첫째는 개인의 변화이고 둘째는 사회의 변화이다. 즉 운동이라는 것은 변화를 동반하는 다양한 액션들을 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물론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혁으로 확장을 하던, 사회변혁이라는 체제변동안에서 개인의 변화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던, 결국엔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정리하자면 결국엔 “확장성을 담보하는 운동”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빈고초기에 빈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실험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흐름들을 던져주는 일종의 메신저역할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흐름 자체가 사회변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활동가들이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집합으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른 상상들을 소소하지만 작은 실천들로 실험해 볼 수 있었다는 사실들은 상당히 강렬한 동기부여들을 던져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빈고의 활동들에서는 이러한 확장성들을 보기 보다는 무엇인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화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작고 소소한 두레공동체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무언가 운동을 논의할 만한 어떤 가치들이 확장되어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흐름들을 만들거나 변화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기긍정”과 “자기선언”으로서의 운동들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는 현재의 빈고가 그렇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빈고 구성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매우 한정적인 탓도 있을 것이다.

아니 운동들이 점차로 개인화되어가는 현상들이 한국사회에서 확산되면서 개인활동들이 공유에만 국한되어지는 일반적인 경향들이 빈고에서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운동의 개인화, 개인네트워크화 하는 운동은 사회변혁이 길보다는 개인의 자기수양을 요구하는 윤리적 운동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탓이다. 보통의 개인화된 운동들은 우선 그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담보로하는 공적 논쟁의 장이 형성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변혁적 운동의 어떤 총위도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무정형의 도덕, 무개입적 윤리만 남아버린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논의나 논쟁을 바라기보다는 공감과 지지, 단순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들이 가지는 플랫폼화현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공동체간의 연대는 실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피로감을 높이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따라서 빈고가 진정 반자본주의, 체제박 실험들을 통한 체제변혁, 개인들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혁의 가능성들을 거론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공감보다는 논쟁과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공감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논의를 통한 지향하는 가치들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 공동체에 대한 접근과 논의가 합의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단순 플랫폼화 현상..

일종에 물이 흘러가지만 곳곳의 저류지에서 걸러지거나 새로운 흐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식의 고민들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단순히 흘러만 가는 것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금융에서 찾는 것”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은행을 타격하는 것은 다르다.

- 공동체간 혹은 공동체와 개인조합간에 흐르는 가치가 ‘화폐’의 가치를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 구체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체활동가회의/공동체회의/지역회의

왜 안되었을까?

빈마을이라는 조직, 해방촌이라는 지역을 벗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들의 공동체’라는 규정은 금융의 상징을 제외하면 온라인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만 존재. 금융적인 원칙과 필요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공통점을 찾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다양해진 공동체들. 무엇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빈고 논의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개념이 2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느낌

첫째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은행의 역할로 나아간다는 것과 공동체의 공동체같은 운동조직으로서의 역할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혼합되면서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느낌이다.

5. 빈고의 성과

- 5.1. 조합원가입 :
- 5.2. 공동체공간 계약 지원 : 50 곳
- 5.3. 공유자산성장
- 5.4. 서비스
 - 5.4.1. 재정시스템
 - 5.4.2. 홈페이지
 - 5.4.3. 건강보험계
 - 5.4.4. 빈땅

6. 설문조사 문항

- 6.1. 빈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6.1.1. 더 편한 은행?
 - 6.1.2. 주거공동체 지원
 - 6.1.3. 공유지 확대
 - 6.1.4.
 - 6.1.5. 공동체들의 공동체?
- 6.2. 내년 사업 방향
 - 6.2.1.
- 6.3. 빈고 공동체가 아닌 것은?
- 6.4. 대표 중 누가 잘했나?
- 6.5. 건강계 계원은 몇명?
- 6.6. 활동가 활동비를 위한 특별 회비 모금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 6.7. 활동계획
- 6.8. 빈고 사업에 대한 평가
 - 6.8.1. 공동체금융
 - 6.8.1.1. 공동체통장
 - 6.8.1.2. 공동체통장 거래내역조회
 - 6.8.1.3. 회비자동출금
 - 6.8.1.4. 회원경비지급
 - 6.8.1.5. 정기이체
 - 6.8.1.6. 빈빵
 - 6.8.1.7.
 - 6.8.2. 출자

- 6.8.2.1. 출자
- 6.8.2.2. 차입
- 6.8.2.3. 펀드
- 6.8.2.4. 이체
- 6.8.2.5. 거래내역조회
- 6.8.3. 이용
 - 6.8.3.1. 공동체공간
 - 6.8.3.2. 공동체활동
 - 6.8.3.3. 공동체회원
 - 6.8.3.4. 출자자이용
- 6.8.4. 연대
 - 6.8.4.1. 지구분담금
 - 6.8.4.2. 공동체기금
 - 6.8.4.3. 건강보험계
- 6.8.5. 운영
 - 6.8.5.1. 상임회의
 - 6.8.5.2. 운영회의
 - 6.8.5.3. 재정공유
 - 6.8.5.4. 홈페이지
 - 6.8.5.5. 뉴스레터
 - 6.8.5.6. 페이스북
 - 6.8.5.7. 텔레그램

7. 사업계획 단상

- 7.1. 홈페이지 개선
 - 7.1.1. 코윤뱅크/커먼즈뱅크/ 사이트 개설?
 - 7.1.2. 조합원 출자, 이체 요청 폼
 - 7.1.3. 공동체 내부 거래 작성 폼
 - 7.1.4. 공동체, 출자 페이지 개선
- 7.2. 재정개선
 - 7.2.1. 단일장부
 - 7.2.2. 매크로
 - 7.2.3. 통계처리
 - 7.2.4. 공동체 장부 연계